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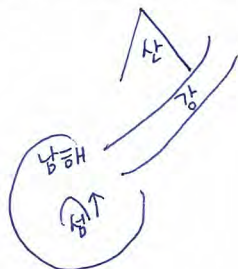
[32~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명탄**
 파르라니 짙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불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명실, 정서**
 빈 대(臺)에 황촉(黃燭) 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일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대구**
 돌아설 듯 날아가며 시뻘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여. **명탄**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우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명탄**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비유**
 이 밤사 귀뚜라미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정각**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누미상관**
 - 조지훈, 「승무」 -

(나)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삐꾸기가
 울음 울어
 때로 울음 울어 **반박, 변용, 정답**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탄* **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삐꾸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삐꾸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반박**
 그래서 여러 마리의 삐꾸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올던 한 마리 삐꾸새 울음이 **정각**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감정이입, 정서**
 이 세석(細石)*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간옹**
 - 송수권, 「지리산 삐꾸새」 -

* 길튼: 길이 덜 든.
 * 세석: 지리산 정상 아래 부근의 지명.

(다) 무등산 한 활개 피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져 와 ㉠ 제월봉(霽月峰)이 되었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에 무슨 짐작 하노라
 일곱 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벌여 논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 늪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앓혔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 정자를 앉혔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랴 두 날개 벌렸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음히 퍼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회지 마나
 쌍룡이 뒤트는 듯 긴 짐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 좇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퍼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앉으랴 내리랴 모이랴 홀으랴
 노화(蘆花)*를 사이 두고 우려곰 좇으니노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피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굶는 듯 잇는 듯
 숨겨니 띄겨니 가저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저어치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 추월산 머리 짓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거든
 원근창애(遠近蒼崖)에 머문 짓도 하도 할사
 - 송순, 「면양정가」 -

* 무변대야: 끝없이 넓은 들판.
 * 사정: 모래톱.
 * 노화: 갈대.

3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X
- ②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한다. X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의 운동감을 나타낸다.
- ④ 대립적 시각을 바탕으로 긍정적 상황 인식을 드러낸다. X
- ⑤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긴장감 있게 제시한다. 가. X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 것은? [3점]

<보 기>

「승무」는 무녀(舞女)를 무대 공간의 중심에 배치하여 관객이 이를 바라보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무녀와 그의 춤을 초점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빛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 작품에는(지상과 천상,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의 속성을 지닌 다양한 빛이 등장하여 무녀의 외양과 행위, 더 나아가 내면세계를 비추고 있다. 이 빛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관객이 무대와 인물을 관조하거나 그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① 어두운 '밤'은 무녀를 비추는 다양한 빛의 양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관객의 관심이 무녀에게 집중되게 한다. 0
- ② '흐르는 빛'은 여러 빛들에 비추어진 무녀의 낯빛으로서, 상승 이미지를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X
- ③ 말없이 녹아내리는 '황촉불'과 기우는 '달'은 하강과 소멸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유한한 인간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0
- ④ 6연의 천상의 '별빛'은 번뇌에서 벗어난 초탈의 세계를 환기하면서 승화의 의미로 이어지게 된다. 0
- ⑤ 7연의 '별빛'은 무녀의 눈과 연결되어 그녀가 지향하는 세계와 내면세계를 서로 이어 준다. 0

34. (가)의 '서러워라'와 (나)의 '설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설움은 역사적인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X
- ② (나)의 설움은 자연물의 주술적 속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X
- ③ (가)와 (나)의 설움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 X
- ④ (가)와 (나)의 설움은 외부 대상과는 무관하게 화자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정서이다. X
- ⑤ ㉠은 밤을 지새우는 '귀뚜라미'의 소리를 통해, ㉡는 '철쭉꽃'의 색깔을 통해 설움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3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 것은?

- ① 1연에는 화자가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노력이 나타난다. 0
- ② 2연의 '실제의 뼈꼭새'는 '여러 마리의 뼈꼭새'와 상반되는 의미를 형성한다. X
- ③ 2연~4연의 첫 행들은 각 연의 시적 공간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방식으로 시상 전개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0
- ④ 3연~4연에서 '산봉우리', '강', '남해', '섬'이 잇달아 연결되면서 변화와 생성의 세계를 보여 준다. 0
- ⑤ 3연~5연은 연의 끝 부분에 '보았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깨달음의 의미를 강조한다. 0

36.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달리, [B]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한다.
- ② [B]와 달리, [X]는 음보율을 통해 정형적 운율미를 느끼게 한다.
- ③ [X]와 [B] 모두 어순의 도치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 ④ [X]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⑤ [X]와 [B]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에서 받은 감흥을 표출한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 것은?

<보 기>

순순이 「면앙정가」에서 펼쳐 보인 세계는 흔히 '면앙우주'라고 일컬어진다. 면앙우주는 작가에게 천지만물의 이치를 심성의 수양으로 내면화하는 공간이었다. 작가는 자연 세계를 통해 인간 세계의 이치를 읽어 내는 가운데 조화와 합일을 추구했다. 그는 객관적 자연물에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했다.

- ① ㉠의 '제월봉'이 '무변대야에 무슨 짐작'을 한다는 표현에는 높은 이상을 향한 작가의 의지가 자연물에 투영되어 있군. 0
- ② ㉡의 '늪은 용'이 '선잠을 갖 깨어'라는 표현에는 이상을 펼치기에 이미 늦었다고 여기는 작가의 조바심이 담겨 있어 X
- ③ ㉢의 '정자가 '청학'처럼 '두 날개 벌렸는 듯'하다는 표현에서 면앙정이 비상(飛上)을 위한 심성 수양의 장소임을 알 수 있군. 0
- ④ ㉣의 '물'이 '밤낮으로 흐르는' 모습을 통해 작가도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쉽 없이 행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어. 0
- ⑤ ㉤의 '추월산'을 비롯한 여러 산들이 '높은 듯 낮은 듯 굽는 듯 있는 듯' 서 있다는 표현에서 조화와 합일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볼 수 있군. 0

10수능. 32~37번

(가) 승무 - 조지훈

이 시도 상당히 유명하죠 ㅎㅎ
제목 보니 승려가 춤을 추겠죠? ㅋㅋ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하얀 고깔을 씩니다 ㅋ
그리고 얇은 사, 박사의 사를 보면 한자가 같습니다
얇은 사 고깔 = 박사 고깔이죠 ㅎㅎ
얇을박 ㅋ

하이얀, 파르라니 - 색채

두 불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고와서 서럽다 - 역설, 정서 직접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梧桐)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대는 초 꽃는 거구요 촉(燭)은 부수들 보면 불화가 있죠?
촛불입니다 ㅎㅎ
고전에 자주 나오니 촉이 촛불이라는 거 알아줘야 하구요 ㅎㅎ
촛불은 타고 오동잎에 달이 비치네요

황촉 - 색채(촛불이 색채가 아니라 황색이 색채), 시각
달 - 시각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며.

소매 길고 발을 살포시 드네요.
승무 추는 걸 묘사합니다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 대구
외씨보선이여 - 영탄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까만 - 색채
별빛 - 시각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世事)에 시달려도 번뇌(煩惱)는 별빛이라.

눈물을 흘리네요. 왜 흘리는지는 모르겠구요 ㅋ

번뇌는 별빛 - 비유(은유)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合掌)인 양하고,

승무 추는 걸 거룩한 합장에 비유하고 있네요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우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귀뚜라미는 아직도 안자네요 ㅋ

귀뚜리도 지새우는 - 청각
얇은 사 ~ 나빌레라 - 수미상관

◎32번.

선지1번. 화자 의지 없음

선지2번. 그리움 없음 ㅋ

선지3번. 감각적 이미지 ㅇㅋ 운동감 ㅇㅋ

선지4번. 대립적 시각 없음

선지5번. 역설 ㅇㅋ 긴장감 있나 없나 따지는 건 의미없어요.

이렇게 애매하게 나온건 (나)나 (다)를 통해서 지우겠죠 ㅋ

그래서 사실 답은 별써 나온거나 다름없습니다 ㅎㅎ

3번이 되겠죠

◎33번. 보기에 필요한 부분에 밑줄 쳐놨습니다 ㅎㅎ

선지1번. 아무의미 없음 ㅋㅋ 답 되면 안되겠죠

선지2번. 흐르는 빛이 상승이미지? ㄴㄴ

선지3번. 황촉불, 달은 하강과 소멸 이미지 ㅇㅋ, 유한한 인간 존재랑 연결 시킬 수 있겠죠
소멸이니까

선지4번. 천상의 별빛이니까 승화로 갈 수 있겠죠. 사실 의미 없는 선지임 ㅋㅋ

선지5번. 별빛이 무녀의 눈과 연결된다. 연결된다라는 선지는 그냥 있다 라는 말과 같은 말
이에요

별빛도 있고 거기에 무녀의 눈도 나왔잖아요 그니까 맞죠 ㅎㅎ

이것도 의미 없는 선지 ㅋ

33번 답5번

㉔34번.

선지1번. 가의 설움은 역사적 경험에서 나왔다 - 만나왔잖아요. 모른다니까요..

선지3번.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 - 비판 하나도 없음 ㅋ

선지4번. 설움은 외부 대상과는 무관하게 화자 내면에서 생성되는 정서 - 아놔 모른다구요
ㅋㅋ 선지1번이랑 같죠

선지5번. 밤을 지새우는 귀뚜리 소리를 통해 설움 환기하며 시상 마무리하고 있다.

해석 하면요

귀뚜리 소리는 시 맨 끝에 있다. 그리고 시에는 설움이 나온다. 이거랑 완전 동의어입니다

ㅇㅇ 맞죠

(나) 지리산 뺨꼭새 - 송수권

시인 별명이 아마 손수권이겠죠? ㅋㅋ

지리산에 사는 뺨꼭이 얘기네요 ㅎㅎ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뺨꾸기가
울음 울어
떼로 울음 울어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뜰 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뺨꼭새임을
알아냈다.

뺨꼭이가 여러마리가 우는 줄 알았는데
삼년이나 지나서야 한 마리가 우는 것인줄 알았대요 ㅎㅎ

울음 울어, 떼로 울음 울어 - 반복, 변용, 청각
석 석 - 반복

지리산 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삐죽새가
한 울음을 토해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삐죽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1연이랑 같은 말이죠 머 ㅎㅎ
메아리 때문에 여러마리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 반복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림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를 흘러들어
남해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이런 거는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ㅎㅎ
제가 이쁘게 그려냈습니다 ㅋㅋ

섬진강 섬진강/ 보았다 보았다 - 반복.. 이제 이걸 안 쓸게요 ㅋㅋ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삐죽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細石)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삐죽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빛깔이 되었대요 - 감정이입, 정서직접, 청각, 시각

이런 배경묘사 같은 시들은 다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ㅎㅎ
이런 시들은 그냥 읽으면 내용은 별거 없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거든요 ㅎㅎ

㊟32번.

선지5번. 역설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예상한대로 3번이 답 ㅋ

㉔34번.

선지2번. 주술적 속성 ㅋㅋ 어디?!!!!ㅋㅋ 없죠

선지5번. 철쭉꽃의 색채를 통해 설움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철쭉 꽃 색채가 마지막에 있고 시 내용이 설움이 있냐?

○○

따라서 답 5번

㉔35번.

선지1번.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노력. - 노력은 딱히 없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자기가 알아내려고 한거니까 맞다고 볼 수 있음 ㅋㅋ 별 의미 없는 선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게 노력이 만나와있어서 틀렸다고 하면 복수정답 시비 안 붙겠어요? ㅎㅎ

선지2번. 실제 뼈국새랑 여러마리 뼈꼭새랑 상반된 의미 - 그 높이 그 높인데.. ㅋㅋ

선지3번. 공간에 대해 주의를 환기한다 = 공간이 나왔다. ○ㅋ

선지4번. 산봉우리, 강, 남해, 섬이 연결되면서 변화와 생성을 보여준다

연결된다 이거 선지에서 나오면 머라구요? 있다 ㅋㅋ

산봉우리, 강, 남해, 섬 다 있지요? ㅎㅎ

그리고 변하고 생겨나고 있죠? ○ㅋ

선지5번. 보았다 반복 ○ㅋ 강조되는지 안되는지 생각도 하지마세요ㅋ 물론 반복하면 강조됩니다 ㅋ

㉔36번.

선지1번. A와 달리 직유 - A 는 직유 없음 ○ㅋ

선지2번. 음보율 - 없죠잉. 음보란 띄어읽기를 말합니다. 3음보 4음보가 주로 나오죠

선지3번. 도치 - 없음

선지4번. 반어 - 없음

선지5번. 영탄 - 없음

답 1번. 참 문제 성의 없죠 ㅋㅋ A 만 보고도 답 나오네요 ㅎㅎ

지문 하나 남았는데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안 보면 바보!

㉔37번. 보기에서 필요한 거 일단 이쁘게 밑줄 쳐주시고

a~e 내용을 확인하면 되는군요 ㅎㅎ

이런 고전은 참 난감합니다..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계속 묘사하고 같은 말 반복하고...에효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ㅋㅋ

선지1번. a 제월봉이 무슨 짐작 = 높은 이상을 향한 작가의 의지?

여기서 짐작은 생각을 한다는 거고 제월봉은 높은거니까 맞죠 ㅎㅎ

선지2번.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 이상을 펼치기에 이미 늦었다고 여기는 조바심?

‘용처럼 날아가고 싶다’ 이런식으로 해야겠죠.

시 전체내용을 보면 이상을 펼치기에 늦었다는 내용 전혀 없고

보기랑도 완전 배치되는 내용이네요 멍

선지3번. 청학처럼 두 날개를 벌렸는 듯 = 비상을 위한 심성 수양장소

보기에 나와있네요 ㅇㅋ

선지4번. 물이 밤낮으로 흐르는 = 추구하는 바 쉽 없이. 이걸 설명 필요 없죠? ㅎㅎ

선지5번. 조화와 합일을 추구한다 보기에 있습니다 ㅎㅎ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돼요

저번에 했던 귀류법 같은 스킬 있잖아요 ㅎㅎ

예를 들면 지금 선지5번 같은 경우에 저게 틀렸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겠나요 ㅎㅎ

평가원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할 게 없죠.

고로 답이 절대 될 수 없는 선지입니다 ㅎㅎ

6

언어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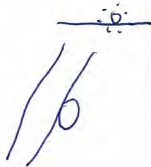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차디찬 아침 이슬 **정감**
진주가* 빛나는 못가 **사각**
연꽃 하나 다복히 피고



소년아 네가 났다니 **정사정정 → 대화체**
맑은 냇에 깃들여
박꽃처럼 자랐어라 **비유**

큰강 목놓아 흘러 **정감. 의인**
여울은 흰 들쭉마다 **색채**
소리 석양(夕陽)을 새기고 **공감각**



너는 준바 달리며
죽도(竹刀) 저 끝은 **기운을**
목숨같이 사랑했거늘

거리를 쫓아다니도
분수(噴水) 있는 풍경 속에
동상답게 서 봐도 좋다

서풍(西風) 땀을 스치고
하늘 한가* 구름 뜨는 곳
회고 푸른 즈음을 노래하며 **색채**

노래 가락은 흔들리고 **정감**
별들 춤다 열어붙고 **정감**
너조차 미친들 어머라 **설의. 명탄**

- 이육사, 「소년에게」 -

* 진주가: 진주인가.
* 한가: 가장 끝 부분.

(나)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반복**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반복...**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 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무(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위사구경 반복**
아 벌받은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 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스지도록**

으스스지도록 부르터지면서 **반복**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짝을 내밀고 **정감**
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새채(동인)**
푸르르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①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어로」 -

(다)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자연 **자연**
굽어보면 천심(千尋) 녹수(綠水) ② **돌아보니** 만첩(萬疊) 청산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자연**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蘆荻) 화총(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一般) 청의미(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자연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에 백구(白鷗) 난다
무심(無心)코 다정한 이 이 두 것이로다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쫓아 놀리라 **자연**

장안(長安)을 ①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 이현보, 「어부단가」 -

* 청하: 푸른 연잎.
* 노적 화총: 갈대와 물억새의 덩굴.
* 일반 청의미: 자연이 주는 참된 의미.
* 제세현: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선비.

2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X
- ②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X
- ③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 세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① X**
- ④ 사물의 속성을 인간의 삶과 대비해 가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X
- ⑤ **구도적**인 자세를 통해 사물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X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차디찬'과 (나)의 '영하 13도'는 모두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예고한다.
- ② (가)의 '넋'과 (나)의 '혼'은 모두 숭고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가)의 '박꽃'은 순수함을, (나)의 '꽃'은 생명력을 함축하고 있다.
- ④ (가)의 '사랑했거늘'은 화해의 의미를, (나)의 '으스러지도 록'은 대결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꽃아다녀도'는 동경을, (나)의 '들이받으면서'는 거부 를 의미한다.

23. (가)와 (다)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다)에 비해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 ② (나)는 (가)에 비해 음악적 리듬감이 두드러진다.
- ③ (다)는 (가)와 달리 대구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 ⑤ (가)와 (다) 모두 영탄의 어조로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육사의 유년 시절은 그가 쓴 수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항일 의병장을 여럿 배출한 선대로부터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배우며 자랐는데, 이러한 지사적 기풍이 자신의 일생을 지배했다고 고백한다. 또 그는 고향의 난동강 가에 앉아, 강물의 큰 흐름을 생각 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간 '영웅'의 이야기에 심취했다고 한다. 이러한 유년의 경험은 민족사의 부활을 믿고 이를 위해 헌신한 그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삶과 시를 일치시킨 그의 시 세계를 구축하게 하였다.

- ① 3연의 '큰강'은 역사적 현실의 비유적 표현이겠군. 0
- ② 4연의 '꿈은 기운'은 선대로부터 배우고 익힌 기상 의 의미 이겠네. 0
- ③ 5연의 '동상'은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신념을 지키려는 당 당함의 표상이겠네. 0
- ④ 6연의 '노래'는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표현한 슬픔의 노래 이겠군. X
- ⑤ 7연의 '너조차 미친들 어떡랴'에서는 화자의 시련 극복의 의지가 느껴지는군. 0

25. (나)의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앞과 뒤에 배치된 시상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 0
- ② ㉠과 ㉡은 화자의 감정과 인식에 독자가 주목하도록 한다. 0
- ③ ㉠의 '천천히', '서서히'는 '씩'이 '있'이 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함을 표현한다. 0
- ④ ㉡은 '자기의 은뎀으로'가 '자기 뎀으로 꽃 피는'으로 비약 하는 데 대한 정서적 대응이다. 0
- ⑤ ㉠에서 ㉡으로 가면서 화자의 시선이 내면에서 외부 세계 로 이동된다. X

26. (다)의 ㉠과 ㉡를 중심으로 (다)를 <보기>와 같이 정리하여 감상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대상	대상의 심상	화자의 태도
㉠ 돌아보니	청산	월백	더욱 무심하여라
㉡ 돌아보니	장안	홍진	잇은 때가 있으랴

- ① '만첩'은 ㉠과 ㉡의 대상 간의 단절을 강조하는 시어이다. 0
- ② '월백'은 '홍진'과 대비되어 강조 공간의 청정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부각한다. 0
- ③ ㉠은 '더욱 무심하여라'와 연결되어 강조 공간에서 화자가 추구하려는 자기 절제의 내면세계를 드러낸다. 0
- ④ ㉡은 '잇은 때가 있으랴'와 연결되어 강조 공간에서도 버릴 수 없었던 정치적 이상에 대한 미련을 드러낸다. 0
- ⑤ ㉠과 ㉡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던 화자가 선택한 최종적인 삶의 방향은 ㉡의 대상이다. X

10.9월평가원 21~26번

(가) 소년에게 - 이육사

이육사가 썼네요 ㅎㅎ
이육사는 시를 하도 이상하게 써서
이육사 시의 특성을 모르면
해석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ㅎㅎ
말투가 이상해요 말투가 ㅋㅋ
제목은 소년에게
소년에게 말을 하겠지요

**차디찬 아침 이슬
진주가 빛나는 못가
연꽃 하나 다복히 피고**

아침에 연꽃이 하나 폼니다

차디찬 - 촉각
빛나는 - 시각

**소년아 네가 났다니
맑은 냇에 깃들여
박꽃처럼 자랐어라**

소년이 태어났네요 ㅎㅎ
여기서 박꽃은 문맥적으로 보면 맑은 거입니다 ㅎㅎ
그럼 소년이 맑게 자란 거지요

소년아 - 청자설정 ->대화체
자랐어라 - 영탄

**큰강 목놓아 흘러
여울은 흰 돌쪽마다
소리 석양(夕陽)을 새기고**

큰강이 막 흐릅니다 석양도 있구요

큰강 목놓아 흘러 - 의인, 청각
흰 - 색채
소리 석양을 새기고 - 공감각

너는 준마 달리며
죽도(竹刀) 저 곧은 기운을
목숨같이 사랑했거늘

소년은 곧은 기운을 사랑합니다

거리를 쫓아다녀도
분수(噴水)있는 풍경 속에
동상답게 서봐도 좋다

동상'답게' 서봐도 좋다고 했으니
동상은 당연히 추구하는 바가 되겠죠
문맥적으로 보면 맑고 곧은 기운이 되겠네요

서풍(西風) 뺨을 스치고
하늘 한가 구름 뜨는곳
희고 푸른 즈음을 노래하며

희고 푸른 즈음은 내가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한다는 건 추구한다는 거죠

희고 푸른 - 색채

노래 가락은 흔들리고
별들 춤다 얼어붙고
너조차 미친들 어찌라

노래 가락은 내가 추구하는 건데 그게 흔들리네요
별이 얼어붙고
당연히 별은 노래가락이랑 같은 역할이겠죠
노래가 흔들리는데 같이 얼어붙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까지 미쳐도 상관없다
갑자기 시 마무리가 이상하죠?
이육사가 시를 다 이렇게 씁니다
자신의 의지를 이렇게 이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래 - 청각

별 - 시각

어찌라 - 영탄, 설의

그리고 많아서 표시는 안했지만
시 전체적으로 비유와 상징이 많이 쓰였네요

㉑21번.

선지1번.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 - 이견 자연친화적 성격의 시에나 걸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선지2번. 자연물 - 나오죠 ㅋ

선지3번. 추구하는 이상 ㅇㅋ

선지4번. 사물과 인간 대비 - 없음

선지5번. 구도 - 땡. 도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종교적인 내용이 나와야겠죠 ㅎㅎ

㉑22번.

선지1번. 차디찬은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예고한다 - 연결한다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선지를 같은 말로 바꿔보면 '차디찬은 새로운 존재의 탄생이 있는 위치에 있다.' 맞죠? ㅎㅎ

선지2번. 낮은 숭고한 분위기 - 숭고한 분위기관 뜻이 높고 고상한 것이니까 시 전체 맥락과 유사하죠

맞다고 볼 수 있죠

선지3번. 박꽃은 순수함을 함축 - 박꽃은 맑은 건데 맑은 거랑 순수한거랑 표현만 다르게 내용상으로 같죠 ㅇㅋ

선지4번. 사랑했거늘은 화해의 의미 - 끝은 기운이랑 화해하나요? ㅋㅋ 땡

선지5번. 쫓아다녀도는 동경을 의미 - 좋아서 쫓아다닌 거니까 동경 맞죠

㉑23번.

선지1번. 청각적 이미지 두드러진다. - 청각이 3번이나 나왔으니 맞죠

선지3번. (가)와 달리 대구의 표현이 반복적 - (가)에는 대구가 없습니다

선지4번.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 - (가)는 시간의 흐름이 전혀 안보이죠

선지5번. 영탄으로 시상을 집약 = 영탄이 마지막에 있다. ㅇㅋ

㉑24번. 보기 중에 필요한 부분에 밑줄 쳐놨어요 ㅎㅎ

선지1번. 큰강은 역사적 현실의 비유 - 민족사를 생각하니까요. ㅇㅋ 아무 의미 없죠

이런 선지는 고민할 것 없이 제끼면 됩니다

답이 될 수 없잖아요 ㅎㅎ

선지2번. 끝은 기운은 선대로부터 배우고 익힌 기상 - ㅇㅋ 보기에서 선대로 부터 배웠다고 했죠. 의미없는 선지

선지3번. 동상은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신념을 지키는 - 동상은 아까 내가 추구하는 거였죠

근데 내가 추구하는 건 맑고 끝은 기운. 따라서 맞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건 판단할 필요가 있는 선지입니다

선지4번. 노래는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표현한 슬픔의 노래 - 노래는 내가 추구하는 거죠. 당연히 틀렸고

보기에서 확인해봐도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배웠다는데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안되겠죠 ㅋㅋ

선지5번. 너조차 미친들 어떡랴 - 시련극복의지. 이것도 별 의미 없는 선지네요

24번은 선지3번과 4번만 판단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ㅎㅎ

답 4번.

(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 황지우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나무는 온몸으로 나무가 된대요 ㅋㅋ

나무가 되려면 먼가 온몸으로 하는 힘든 과정이 있나보죠

나무는 ~나무이다. 나무는 나무가 - 반복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십삼 도

영하 이십 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 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 받은 몸으로, 벌 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 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오 도 영상 십삼 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제목이 겨울나무에서 봄나무니까요

지금은 겨울나무의 상태가 되겠네요

그니까 헐벗고 춥지요

겨울나무가 막 지상으로 밀고 올라갑니다

자기 온몸으로 - 반복

무방비 나목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 유사구절 반복

반복 징하게 나오네요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온몸이 흐스러지고 터지는 고통을 겪고
봄나무로 거듭납니다

으스러지도록 - 반복
뜨거운 - 촉각
푸른 - (동일한) 색채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꽃을 피었으니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죠 ㅎㅎ

㉔1번.

선지2번. 자연물 ㅇㅋ

선지3번. 추구하는 이상 세계 - 없둠 ㅋ

답2번

㉔2번.

선지1번. 영하 13도는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예고

= 새로운 존재 탄생에 영하 13도가 있나? 이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영하 13도 어디 있어요?

맨 앞쪽에 있죠.

새로운 존재 탄생 즉, 봄나무 or 꽃은 어디에 있나요? 뒤쪽에

영하 13도가 새로운 존재탄생을 예고하죠 ㅋ

따라서 땡

선지2번. 혼은 승고한 분위기 - 고난을 겪고 새로운 존재가 되면 승고한 건가요? 아니죠
ㅎㅎ

선지3번. 꽃은 생명력을 함축한다.

새로운 존재가 탄생했으니 생명력이죠 ㅎㅎ ㅇㅋ

선지5번. 들이받으면서는 거부를 의미한다. - 그걸 위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들이받으면서는 온몸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쓴거구요

답 3번.

㉔5번.

선지1. 시상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 - 내용은 없는데 이상한 잡소리를 많이 써놨
으니 느려지죠 ㅎㅎ

선지2번. 독자가 주목하게 한다 ㅇㅋ

선지3번. 천천히 서서히는 긴 시간이 필요함을 표현한다. 천천히 서서히 = 긴시간 같은 말
이죠 ㅎㅎ

선지4번. 나는 '자기 온몸으로'가 '자기 몸으로 꽃피는'으로 비약하는데 대한 정서적 대응

이다.

이 선지를 같은 말로 바꿔보면 ㄴ이 '자기 온몸으로'와 '자기몸으로 꽃피는' 사이에 있나?

○○

선지5번. ㄱ->ㄴ 가면서 시선이 내면에서 외부로. 계속 나무만 보고 있는데 먼 소리여 ㅎㅎ
ㅎㅎ 땡

답 5번

지문하나 문제 하나 남았네요

문제를 살펴보고 갑니다 ㅋㅋ

☺26번.

(다)의 내용을 정리했는데

청산 vs 장안 이네요 ㅎㅎ

그럼 (다)의 내용은 자연과 속세 비교하는 게 나오겠죠 ㅎㅎ

고전은 다 일반화 시키면 됩니다 ㅎㅎ

(다) 어부단가 - 이현보

이 중에 시름 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이로다.

일엽편주(一葉片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시름은 걱정이죠 ㅎㅎ

걱정 없는 것이 어부의 인생이다

일엽편주를 만경파에 띄워둔대요

어부는 띄우는건 먼가요? 배

배는 어디에 띄우나요? 바다

일엽편주는 배, 만경파는 바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ㅎㅎ

인세를 다 잊었다. 인세 = 속세로 일반화

굽어보면 천심녹수(千尋綠水) 돌아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천심녹수 중에 아는한자 물수자 있죠 ㅎㅎ

만첩청산은 피산자 있죠 ㅎㅎ

굽어보면 자연, 돌아봐도 자연

속세를 얼마나 가렸나

자연에 달 뜨니 더욱 욕심없다

옛날에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무심 = 욕심 없는거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화총(蘆荻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고.**

뭔진 몰라도 푸른거에 밥싸고 녹색 뒤편에 고기를 꿰대요
풀이겠죠 뭐 ㅋㅋ

노적화총은 뭐? 배 묶어두는 곳
자연이 주는 참된 의미를 어느 분이 알까
일반청의미는 본문 밑에 나와있어요 ㅎㅎ

**산두(山頭)에 한운(閑雲)이 기(起)하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이 비(飛)이라.
무심(無心)코 다정(多情)하니 이 두 것이로다.
일생(一生)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으리라.**

雲이랑 백구는 알아야돼요 ㅎㅎ
상식임
운은 구름운자. 손오공이 근두운 타고 다니잖아요 ㅎㅎ
백구는 갈매기.
산머리에 구름이 기 한대요
기(起) 모르잖아요
산머리에 구름이 어떻겠어요? 있겠죠 ㅋㅋ
백구는 날겠지요

산에 구름 있고 물에 백구 있다.
욕심없고 다정한 것이 구름과 백구다.
걱정 있고 구름과 백구를 좇아 놀겠다
구름 백구 일반화 하면 뭐? 자연
자연을 좇겠다 이거죠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라.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라.**

장안은 시장이죠
북궐은 대궐.근데 머네요 ㅎㅎ
둘다 속세를 의미하죠
배에 누어있어도 잊은 때가 없다.
냅뉘라 내 걱정 아니다
다른 똑똑한 놈이 있겠지

◎26번.

선지1번. 만첩은 뭘 하고 있죠?

속세를 가리고 있죠

그니까 단절을 강조 ㅇㅋ

선지2번. 월백은 홍진과 대비 &강호 공간의 이미지. 달은 자연이잖아요 ㅎㅎ ㅇㅋ

선지3번. a는 강호공간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내면세계. ㅇㅋ a는 자연이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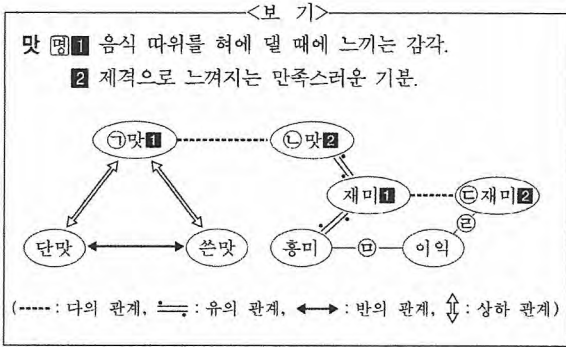
선지4번. 잊은 때가 있으랴가 강호공간에서 정치적 이상에 대한 미련. 맞죠 강호에 있어도
못 잊었다고 했으니

선지5번. 최종 선택은 b다. - 냅두라고 내 걱정 아니라 했는데 어떻게 b예요 ㅎㅎ 땡
따라서 답 5번.

4

언어 영역

11. <보기>는 국어사전을 토대로 '맛'과 관련된 어휘 사이의 의미 관계를 그려 본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여행을 꼭 해외로 가야만 **맛**인가?”의 ‘**맛**’은 ㉠과 다의 관계이다.
- ② “음식에 설탕을 넣어 **단맛**을 내다.”의 ‘**단맛**’은 ㉠의 하의어이고, ‘**단맛**’과 반의 관계인 ‘**쓴맛**’도 ㉠의 하의어이다.
- ③ “내가 어제 본 만화는 정말 **재미**가 있었어.”의 ‘**재미**’가 ㉠과 유의 관계라면, ㉠과는 다의 관계가 된다.
- ④ “시계가 올라 **이익**을 본 상인이 많다.”의 ‘**이익**’이 ㉡과 유의 관계라면, ㉡의 표시는 ‘≡’이 알맞다.
- ⑤ “소설의 결말을 알면 **흥미**가 반감된다.”의 ‘**흥미**’와 ‘**이익**’ 사이에서는 <보기>에 제시된 의미 관계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은 주어진 부호로는 표시할 수 없다.

12. <보기>를 통해 감탄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보 기>

아 들: 아버지, 저도 바둑을 배워서 명인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 ㉠ 뭐, 명인이 된다고?
 아 들: ㉡ 예, 그러니까 바둑판 하나 사 주세요.
 아버지: ㉢ 글썄, 사 줘야 되냐?
 아 들: 사 주세요, ㉣ 예?
 아버지: 얼마 전에 농구 선수가 되겠다고 해서 농구공을 사 줬더니 작심삼일이었잖아. 이번에도 호지부지할 거지?
 아 들: 그런데, ㉤ 을, 작심삼일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그건 결심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말인데,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아 들: ㉥ 아니요,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아버지: 명인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아 들: ㉦ 글썄요, 같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 볼게요.

- ① ㉠은 더 이상 여러 말 할 것 없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겠군.
- ② ㉡은 긍정하여 대답하는 의미로, ㉢은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놀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군.
- ③ ㉣이 ㉤처럼 나타나는 것을 보면, 감탄사도 상대에 따라 다른 형태로 쓰일 수 있군.

- ④ ㉡이 문장의 중간에 쓰인 것을 보면 독립어의 기능을 할 수 없겠군.
- ⑤ ㉢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의 ‘아니’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겠군.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가물음 땅에 시머든 더운 김이 **죽각**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음성상징어**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 오르노나. **명단**
 가쁜 숨결을 드내워노니, 박나비*처럼, **비유, 도치**
 가너린 머리, **주사*** 짙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리다, 나는 중얼거리다, **반복**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多神敎徒)와도 같이.
 아아, 이 애가 예자지게 보채노나! **유사구절 반복**
 볼도 약도 달도 없는 밤,
 아득한 하늘에는
 별들이 참별 날듯 하여라. **시각, 명단**

- 정지용, '발열(發熱). -

*박나비: 흰제비불나방. 몸이 흰색이고 배에는 붉은 줄무늬가 있음.
 *주사(朱砂): 짙은 붉은색의 광물질로, 한방에서 열을 내리는 데 사용하였음.

(나)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색채**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디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음성상징어**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위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대조**

바깥은 거친 들 이리베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쏘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들** **곳** **몸들** **곳** **없어**지다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 **들** **못** **한다** **수미상관**

- 김영랑, '거문고. -

(다)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설차 한 대 울 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색채(동명), 비유**
대조 짧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계절감, 시각**
쪼그마한 **눈덩이** **만만** **게** **짧은** **날개** **를** **파닥**이며……
굴뚝 **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두메마을 길 끊어 놓을 듯 **대구**
 은하수가 펄펄 쏟아져 날아오듯 덩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비유**

쫓그마한 솟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가을은면 반박**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러부러한 술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반박**
 때죽나무와 때 끊이는 외딴집 굴뚝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반박**

[E]

- 최승호, '대설주의보' -

13. (가)~(다)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느끼게 한다.
 - ② ~~(가)~~, (다)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하여 시적인 여운을 준다.
 - ③ ~~(가)~~, ~~(나)~~는 의인화된 사물을 등장시켜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 ④ ~~(가)~~, ~~(나)~~, (다)는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대상의 현재 상황을 부각하여 시적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14. 다음은 (가)를 영상시로 제작하기 위한 계획서이다.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의 사항	• 카메라의 위치와 움직임은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른다. • 낭송, 영상 및 음향 효과는 시의 내용과 표현에 따른다.
[A]	ㄱ. 카메라 시선을 위쪽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림. ㄴ. 화면을 점차 뿌옇게 처리.
[B]	ㄷ. 붉은색이 두드러지는 영상과 가쁜 호흡의 음향 사용. ㄹ. 클로즈업 기법 활용. ㅁ. 5행과 10행은 영단적 어조로 낭송.
[C]	ㅂ. 카메라 시선을 밝하늘 쪽으로 옮겨 원경으로 담아 냄. ㅅ. 빛이 흩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영상 효과를 줌.

- ① ㄱ, ㄴ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을 제시하고 작품 초반부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효과적이겠군. ◦
- ② ㄷ은 안타까운 상황과 분위기를 전달하고 '애'가 겪는 고통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
- ③ ㄹ로 '애'의 모습을 담으면 감상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겠군. ◦
- ④ ㅁ은 화자의 간절한 심정과 내면 심리를 엿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어. ◦
- ⑤ ㅂ, ㅅ은 의식이 혼미해진 '애'의 상태를 보여 주는 데 효과적일 것 같아. X **속어를 바꿔놓은 선지**

15. <보기>의 설명을 듣고, 학생들이 (나)와 (다)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김 선생님: 순수 서정 시인 김영랑은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더 이상 마음속 울림을 맑은 가락으로 빚어낸 시를 쓸 수 없었어요.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거문고」는 이런 현실을 우의적 표현으로 비판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1980년대 초반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은 「대설주의보」를 읽어 보지요. 이 작품은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해서 강압 통치를 했던 시대와 관련이 깊습니다.

- ① ~~(가)~~와 (다) 모두 생각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기에 창작되었어.
- ② ~~(가)~~와 (다) 모두 고난 극복 의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지 않아.
- ③ ~~(가)~~의 '울지를 못한다'와 (다)의 '내리는'은 모두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
- ④ ~~(가)~~의 '기린'은 '노인'에게, (다)의 '굴~~새~~'는 세상 사람들에게 위면당한 존재야.
- ⑤ ~~(가)~~의 '이리떼'와 '잔나비떼'처럼, (다)의 '술개'는 부당한 권력을 암시하는 소재야.

16. [D]와 [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E]는 자아 성찰을 위한 내면의 공간이 나타난다.
 - ② ~~(가)~~와 [E]는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보여 준다.
 - ③ ~~(가)~~와 [E]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한다.
 - ④ ~~(가)~~에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이, [E]에는 화자와 대상의 일체감이 나타난다.
 - ⑤ ~~(가)~~에는 화자가 선택한 은거의 공간이, [E]에는 생명이 위협받는 고립의 공간이 암시된다.

10. 6월평가원 13~16번

(가) 발열 - 정지용

이 시도 상당히 유명한 시죠 ㅎㅎ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운 걸로 기억하는데 ㅎㅎ
아무튼 제목이 발열이니까 열이 나는 상황이겠죠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가물음 땅에 시며든 더운 김이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 오르노나.

애가 열이 나고 있네요

훈훈히 - 촉각

아아 - 영탄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 도치

가쁜 숨결을 드내쉬노니, 박나비처럼
가녀린 머리, 주사 짙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리다, 나는 중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多神教徒)와도 같이.

애가 아프니까 다신교도처럼 하나님,부처님,천지신령님을 찾고 있습니다

드내쉬노니 박나비처럼/ 중얼거리다 ~같이 - 도치

박나비처럼, 다신교도와도 같이 - 비유

나는 중얼거리다 - 반복

아아, 이 애가 애자지게 보채노나!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아득한 하늘에는
별들이 참별 날으듯 하여라.

애가 막 우네요

근데 불도 약도 없어서

아득한 심정입니다

그 심정을 별들이 참별 날으듯 하는 것에 비유했네요

아아 - 영탄

이 애가 애자지게 보채노나 - 5연과 비슷하네요. 유사구절 반복

불도 약도 달도 - 반복

별 - 시각

참별 날으듯 - 비유, 시적허용

☺13번.

선지1번. 동일한 시행 - 없죠 비슷한건 있지만

선지2번. 명사로 끝맺은 시행 반복 - 하나밖에 없어용

선지4번. 도치 ㅇㅋ

선지5번. 현재 상황 부각 - 현재형 어미를 쓰고 있으니 맞죠

㉓14번. 문제 형식이 좀 낯설지만 그냥 내용 일치입니다.

선지1번. 아무의미 없습니다

장소, 시간, 초반부 인지 보면 되는데 이걸로 틀리게 할까요?

그냥 넘기고 정 의심가면 나중에 보세요 ㅎㅎ

선지2번. 붉은색과 가쁜 호흡을 써서 애가 겪는 고통을 강조한다.

B쪽에 애가 겪는 고통이 나오나요? ㅇㅋ

선지3번. 아무의미 없구요

선지4번. 영탄 이면 간절한 심정을 보여줄 수 있겠죠

선지5번. 의식이 혼미해진 애의 상태를 보여준다.

화자가 누구죠? 애의 보호자죠

애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땡

주어를 바꿔놓아서 답으로 만드는 선지가 꽤 있으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ㅎㅎ

(나) 거문고 - 김영랑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디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20년이 지나도 기린은 울지를 못하네요
제목이 거문고니까 기린은 거문고를 뜻하겠죠

검은 - 색채
기린 - 비유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우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예전에 거문고를 치던 노인은 어디 높이 앉아있는데
외로운 거문고를 설마 잊었을까 하고 말하네요

통 - 음성상징어, 청각
우의 외론 하마 - 사투리, 시적허용
외론 - 정서

바깥은 거친 들 이리떼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쏘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들 곳 몸들 곳 없어지다

밖에는 이리떼랑 원숭이가 돌아다니어서
기린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에 처박혀 있겠죠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밖에 무서운 애들 있으니까 방에 문 닫고 벽에 기대있는데
또 해가 바뀌네요
오늘도 기린은 울지 못합니다
노인은 가고, 밖에는 무서운 애들 있으니까요

첫 연과 끝 연이 완벽히 같지는 않지만
 그냥 수미상관 써놓고
 문제에서 수미상관 비슷한 말 나오면 맞다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켰다 이런식으로요 ㅎㅎ

☺13번.

- 선지3번. 의인화된 사물 ㅇㅋ
- 선지4번. 도치 ㄴㄴ
- 선지5번. 현재상황 ㅇㅋ

☺15번. 모국어 시를 쓰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우의적으로 비판한 시라고 하네요

- 선지1번. 생각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다. ㅇㅋ
- 선지2번. 고난 극복 의지가 없다 - 방에 찌따처럼 숨어있잖아요 그니까 맞죠
- 선지3번. 울지를 못한다를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죠 진짜 울지를 못하는 거랑 모국어로 시를 못 쓰는거랑 ㅋ
- 선지4번. 기린은 노인에게 외면당한 존재. 글썩요 노인이 떠나긴 했는데 하마 잇었을라 하
 는거보면 아닌 것도 같고 애매하네요. 하지만 고민할 필요 없죠 어차피 다른 확실한 게 나
 올테니까요 ㅎㅎ
- 선지5번. 이리때와 잔나비때는 권력을 암시한다.
 애네 때문에 못 울고 있잖아요 그니까 ㅇㅋ

☺16번.

- 선지1번. 자아성찰 - 방에 찌따처럼 숨어있는게 자아 성찰은 아니죠
- 선지2번. 심리적 갈등 해소 - 계속 무서워서 못 울고 있죠
- 선지3번. 표면에 드러난 화자 - 나 혹은 우리 라는 1인칭 나왔나요? '내' 기린 나왔네요 ㅇ
 ㅋ
- 선지4번.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 - 내 기린인데 그럴리가요 거리감 나와있는거 어디에도 없
 죠
- 선지5번. 은거의 공간 = 숨은 공간 ㅇㅋ

(다) 대설주의보 - 최승호

눈이 나오겠죠 ㅎㅎ
 눈은 계절감, 시각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계절차 한 대 울 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붉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쪼그마한 숲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눈보라가 쳐서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온통 다 눈발이네요
 근데 조그만 굴뚝새 하나가 그 사이를 날아가네요

해일처럼 - 비유
 백색 - 동일 색채, 시각
 눈 - 계절감, 시각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두메마을 길 끝을 듯
은하수가 펄펄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눈이 엄청 많이 오네요
군대처럼 무섭게요

~가 ~할 듯 - 대구, 비유
눈보라의 군단 - 비유
백색의 계엄령 - 비유

쪼그마한 숲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때죽나무와 때 끊이는 외딴집 굴뚝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굴뚝새가 뒷간에 숨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무섭게 몰려오네요

쪼그마한 숲덩이만한 게 ~파닥이며 - 같은 구절 반복
것일까. - 의문

☺13번. 공통점 문제는 이렇게 (다)까지 확인하게 만들어야 잘 만든거죠 ㅎㅎ

선지3번. 의인화 ㅇㅋ

선지5번. 현재 상황 - 현재형 어미 쓰고 있네요 ㅇㅋ

그럼 답이 두개? ㄴㄴ

이제 선지 전체를 확인해 봐야죠

선지5번은 다른 판단 부위 없고

선지3번은 친근감이 하나 남았네요

눈보라는 굴뚝새를 위협하는 존재인데 친근감을 줄리가 있나요 ㅎㅎ 땡

답 5번

☺15번. 아까 선지4번만 남았는데 선지4번이 애매했잖아요 ㅎㅎ

선지4번. 굴뚝새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존재 -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ㅎㅎ

강력한 존재인 눈보라에 억압받는 대상일 뿐

따라서 답 4번

p.s. 스캔본에는 답이 2번으로 표시되어 있죠? 끝에 어미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 걸 나타난다로 착각해서 명칭하게 x 치고 넘어갔네요 ㅠㅠ 설명은 이상없으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ㅎㅎ 스캔본에도 선지4번은 제대로 표시를 했습니다 ㅋㅋ

☺16번.

선지3번. 1인칭 표현 없죠? 땡

선지5번. 생명이 위협받는 고립의 공간 ㅇㅋ

답 5번.